

‘코로나 제로’ 강진·장흥군 ... 비결은 주민 헌신·협조

강진, 1년 간 청정 유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인천 옹진군과 2곳 뿐 장흥군도 귀국한 유학생 1명 이외는 지역감염 사례 없어 ‘무풍지대’ 타지역 방문 자제·자발적 격리·강력 방역 ... “애들이 설에 오지 마라”

“강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비결이라 보면 비결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군민 결속을 다지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

“3만7000명의 군민들의 헌신과 협조 덕분에 장흥군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박옥란 장흥군 보건소장)

지난해 1월 21일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11일 현재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6만965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가 적은 날은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물론 농촌, 섬·산간 마을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코로나 19 청정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2곳 있다. 강진과 인천 옹진군이다. 입도객 통계가 쉬운 섬(옹진군)을 제외하면 남은 곳은 강진 한군데로, 강진에 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감염 사례도, 해외 유입 사례도 모두 0명이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무풍지대, 강진의 비결은 무엇일까.

전남도 역학조사관을 역임한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협조에서 비결을 찾았다. “읍내 주민부터 시골 마을 주민들까지 군민 모두가 강진에선 아직 코로나 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강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는 마음가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되게 강해요”

강진군의 강력한 방역 조치도 빼놓을 수 없다. 종교시설·다중시설 손소독제 비치, 소독 강화, 버스터미널 등 외지인 유입 시설 발열 감시카메라 운영은 물론 취약계층 마스크 무료 배부 등은 방역의 기본이었으며, 읍·면 전체 마을에 감염 예방 수칙 안내 방송을 하루 2회씩 실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 가을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쏟아지던 무렵부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지역 방문을 삼갔다. 지난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 캠페

인을 군청과 주민들이 합심해 대대적으로 벌였다. 부모의 만류에도 명절과 각종 경조사, 기념일에 자녀가 집을 다녀가면 주민들은 경로당과 마을 회관 등 바깥출입을 1~2주간 자발적으로 삼갔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모여 코로나 19 확진자 0명을 유지한 비결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강진군과 이웃한 장흥군 역시 사실상 코로나 19 무풍지대로 꼽힌다. 장흥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귀국한 해외 유학생(20대 여성)의 확진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지역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귀국하는 딸을 마중 나간 가족 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한 방역 조치 덕분에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박옥란 장흥군 보건소장 역시 주민들의 헌신과 방역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박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이후 보건소 내에 총괄팀, 감시홍보팀, 접촉자관리팀, 역학조사팀, 환자이송팀, CCTV 확인팀 등 6개 대응팀을 발 빠르게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갔다”라며 “주민들께서 마스크 쓰기, 타지역 방문 안 하기, 감기 증세 나타나면 검사받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있다”고 했다.

장흥군은 설(2월 12일)을 한 달 앞두고 이날부터 ‘고향 방문 자제 범 군민운동’을 시작했다. 장흥군은 코로나 19 발생지역 및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군 경계 도로변 등 관내 40여 곳에 설치하고, 주민 동참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현수막에는 “아그들아! 이번 설날은 오지 말고 읍촌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와 같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제지 있는 문구가 담겼다.

강진군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강진군과 장흥군이 코로나 19 확진자 0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주민 협조가 절대적이었”이라며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민들과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강진·장흥=남철화·김용기 기자 choul@



눈에 묻힌 양배추 수확 12일 무안 해저면의 한 농가에서 농민들이 눈발에 파묻힌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설 선물 한도 상향에 전남 농어가 기대감

올해 한해 10만원 → 20만원
한우·굴비 등 매출 증가할 듯

정부가 이번 설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내 농수축산어가, 관련 법인 등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우, 굴비, 전복 등 1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맞춰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선물 허용 한도액 10만원 상향 조치에 따라 5만원 이상 고가 상품의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설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주로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26억(전년대비 4.8배)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7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삼은 남도장터가 이번 설을 맞아 ‘설 선물 한도액 20만원 한시 상향’이 이뤄질 경우 고가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선물 허용 한도액 10만원 상향 조치에 따라 5만원 이상 고가 상품의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설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주로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도장터의 1만5700여 개 상품 가운데 20만원 이상은 17개, 10만원 이상은 65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로 고향 부모, 친지 등을 방문하기 어

렵게 되면서 고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입점업체에 새로운 선물세트 구성을 권장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선물 허용 한도액을 높일 경우 고가 상품이 잘 팔리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포장이나 택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쇄될 수 있어 농산어민 및 관련 업체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

해서는 절차상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의 의견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적으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을 한해사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연합뉴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 점차 누그러져

도, 진주기도원 방문자 검사 명령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광주 효정요양병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7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광주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다른 요양병원으로 분리 이송됐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환자 83명,

직원 25명, 가족·지인 12명 등 120명이다.

진주 국제기도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전남도는 이날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확산세 차단을 나섰다. 의무 검사 대상자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국내 체류·거주자들이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규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대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식산업센터 21실 | 운동 및 문화집합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공(연)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소외된 피해에 상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소외자의 용이한 권보호를 위해 법정개별채무유예를 사용합니다. ※ 계획량당 10㎡ 미만은 해당된 사항(미포) 후주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KAIT 한국자산신탁 새 삼일건설 새 삼일루터아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